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이 상 준

(영남신학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중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인가를 확인하고,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환경적 보호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봄,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완화효과를 나타내는 환경적 보호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7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집단과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집단에서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각각 약 43%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지지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는 사회적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가족지지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적 탄력성, 가정폭력 노출, 환경적 보호요인

1. 서 론

발달적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내에서의 경험은 이들의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약 50%가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보건복지부, 2000; 장덕희, 2001), 청소년들의 약 60% 이상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기도 하고(조미숙, 1999; 김정란, 2003), 약 40%는 이들 부모로부터 다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김연옥·박인아, 2000).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될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에도 노출되는 등

가정에서 희생자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적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거나(Shonk and Cicchetti, 2001; Darwish, Esquivel, Houtz, and Alfonso, 2001; Lansford, Dodge, Pettit, Bates, Crozier, and Kaplow, 2002; Kernic, Wolf, Holt, McKnight, Huebner, and Rivara, 2003), 비행이나 폭력, 가출과 자살 등의 문제행동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Smith and Thornberry, 1995; Thomson and Braaten-Antrim, 1998; Ryan, Kilmer, Cauce, Watanabe, and Hoyt, 2000; Tyler and Cauce, 2002).

그러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모두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가정폭력 경험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에 그리고 폭력의 세대간 전이간에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더라도 약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Fincham and Osborne, 1993; O'keefe, 1998),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Perkins and Jones, 2004). 가정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자와 같이 가정폭력이라는 위험요인과 이들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부적응적 현상만을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부적응에만 초점을 둔 문제중심적 관점으로는 어린시절부터 그 뿌리를 지니고 있는 가정폭력의 영향력을 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후자와 같이 위험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을 보이지 않고 잘 적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설명하기에는 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도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강점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 중에서도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유능성을 회복한다는 강점관점의 연구가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탄력성이란 심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거나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유능성(competence)을 의미하며,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Garmezy, 1993). 탄력성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생활에서의 유능성을 강조하는 학업적 탄력성(박현선, 1998; Hernandez, 1993; Makris, 1999; Lewis III, 2003)과, 관계적 차원에서의 유능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탄력성(Luthar, 1991; Luthar et al., 1993; Spaccarelli and Kim, 1995; Voegler, 2000)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세대간 전이현상을 나타내고(김재엽, 1997; 장덕희, 2001; Kaufman and Zigler, 1987; Ehrensaft et al., 2003), 이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옥·박경규, 2002; 이신옥, 2003; Smith and Thornberry, 1995; Darwish et al., 2001).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이 이들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폭력을 통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왜곡된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적 차원의 유능성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회적 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력성 연구에서는 위험상황에서 역기능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을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박현선, 1998). 보호요인은 위협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증대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다(Rutter, 1979; Garmezy, 1985). 결국 청소년들의 탄력성은 위협요인의 부정적인 경로로부터 위협의 영향을 증대하는 보호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탄력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협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들에게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인간에게 있어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위협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환경적 보호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위협에서의 적응을 설명하는 탄력성이론과 사회적 탄력성

가정에서의 위협 가운데 대표적 위협요인인 부모의 이혼과 별거 또는 빈곤은 청소년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원거리(distal) 위협요인으로 간주되며, 폭력적 가정분위기나 강압적 자녀양육 방식, 부모의 애정결핍 등은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접한(proximal) 요소로 여겨진다(신현숙, 2003). 그만큼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위험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이라는 부정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년들은 폭넓은 행동적 영역에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산물에서 유능성을 나타낸다. 역경(adversity)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능성의 발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탄력성으로 정의되어 왔다(Arrington and Wilson, 2000).

탄력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가 없거나 증상수준이 낮은 상태 또는 해당연령에 기대되는 학업적, 사회적 유능성을 성취한 상태(Masten and Coatsworth, 1998)로 정의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탄력성을 고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또는 기대된 결과 이상의 좋은 적응을 보이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Rutter, 1990; Masten, 1994; Fraser, Richman, and Galinsky, 1999). 결국 탄력성의 개념은 심각한 위협에 대한 노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는 우수한 긍정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축하고 있다(Masten and Coatsworth, 1998; Luthar, Cicchetti, and Becker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심각한 가정폭력의 위협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적응성을 보일 때, 이들을 탄

력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탄력성의 정의와 타당성에는 각기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탄력성 모델은 크게 '산물중심(outcome-focused)'과 '과정중심(process-focused)' 접근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다(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and Sawyer, 2003). 이러한 접근은 탄력성의 측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물중심의 연구에서 탄력성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유능한 행동이나 효과적인 기능패턴을 유지하는 산물로서 정의되고 있으며, 전형적으로 기능성의 유지 또는 유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정중심의 연구는 위험상황의 영향을 중재하도록 작용하는 보호기제의 범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탄력성을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고위험에 처한 개인의 발달적 산물에 기여하는 보호적 요인들을 탄력성이라고 보았으며(Rutter, 1990), 주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이나 과정을 탐색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결국 산물중심의 연구는 탄력성을 적응적 결과로 보며, 과정중심의 연구는 탄력성을 보호적 자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라는 위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탄력적 산물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산물중심의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산물중심의 접근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폭력이라는 특정 위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보호적 요인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탄력성은 각기 다른 연구집단에 따라 다양한 위험상황이 고려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탄력적 산물이 정의되어 왔다(Olsson et al., 2003). 이러한 탄력적 산물에 대해 매스틴 등(Masten, Coatsworth, Neemann, Gest, Tellgen, and Garmezy, 1995)은 청소년들에 대한 탄력성의 적절한 지표는 학업적 유능성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올슨 등(Olsson et al., 2003)은 다양한 영역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학업적, 직업적, 관계적 차원에서 유능성을 사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루타 등(Luthar et al., 2000)은 탄력성의 지표인 탄력적 산물은 위험상황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을 통해서 왜곡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폭력적 가정환경에서 왜곡된 관계 경험을 한 청소년들에 대한 탄력성은 관계적 차원에서의 능력을 사정하는 사회적 유능성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상호교류에서 성공하는 정도로서 사회관계망을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Conger and Conger, 1982; Raver and Zigler, 1997). 즉, 사회적 탄력성(social resilience)이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발휘되는 높은 적응능력을 의미한다.

2) 사회적 탄력성과 보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사회문제와 건강문제를 개념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로서 등장하게 된 탄력성의 개념은 보호요인의 탐색을 동반한다(Fraser et al., 1999).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도 위험의 원천에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mpas, Hinden, and Gerhardt, 1995). 그러나 탄력성 연구에서 보호요인은 부적응적 산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여, 적응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Masten, 1994), 이러한 보호요인들은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심지어 예방하기도 한다(Greene, 2002). 워너(Werner, 1995)는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출생하여 만성적 빈곤이나 가정불화, 부모 이혼 등의 고위험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을 30여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탄력성은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탄력성은 강점이나 약점과 같이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과 환경의 보호요인들에 의해 향상된다는 것이다(Stewart, Reid, and Mangham, 1997).

2,41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의 역할에 대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제셔 등(Jessor, Bos, Vanderryn, Costa, and Turbin, 1995)은 위험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인이 많을수록 문제행동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리와 브로디(Murry and Brody, 199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골지역의 모자가정을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위험이 탄력적 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요인이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요인은 유사한 환경의 집단보다는 고위험 아동집단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루따(1991)는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요인이 완충적으로 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위험요인의 영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드시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가시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Jessor, 199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양한 보호요인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여 왔다. 청소년 탄력성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적 수준, 가족수준, 지역사회수준의 세 가지 수준에서의 보호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Olsson et al., 2003). 보겐슈네이더(Bogensneider, 1996)는 보호요인의 범주를 좀더 세분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영역을 제외한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보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요인에서는 가족지지를 살펴보고, 또래요인에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학교요인에서는 민주적 학교분위기, 지역사회요인에서는 가족 이외의 다른 성인의 지지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사정하고자 한다.

가족환경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청소년의 성격과 발달 및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가족 내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이경은·장덕희, 2000), 적어도 한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가족 불화의 위험에 보호적으로 작용한다(Rutter, 1979).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음주나 흡연, 자살 등의 문제행동에 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erkins and Jones, 2004), 가족지지는 부정적인 생활환경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학업적, 심리사회적 탄력성에도 주요 보호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박현선, 1998; Makris, 1999; Tusaie-Mumford, 2001).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부모의 영향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친구들과 친분을 맺고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이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

를 들어, 일탈성향의 또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은 우울이나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문제와 약물이나 폭행, 절도와 같은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한다(Dekovic, 1999). 퍼킨스와 존스(Perkins and Jones, 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친사회적 특성의 또래집단에 소속된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사회적인 또래들과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oglund and Leadbeater, 2004). 이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보호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앤더슨(Anderson, 1998)은 학교분위기가 학교의 교육적 임무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학교의 내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정적인 학교분위기와 왜곡된 학교환경은 학교폭력의 발생에 영향을 주고(이상균, 1998; Williams, Stiffman, and O'Neal, 1998),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학교에 더 흥미를 갖고 생활하게 된다(Hernandez, 1993). 또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는 빈곤이나 부모의 음주문제와 같은 위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학교탄력성에 보호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1998; 김재한, 2003). 이에 학교분위기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사, 성직자, 상담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지지적인 성인들은 가족이 최적의 지지적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아동들의 탄력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Werner and Smith, 1992; Lindsey, Kurtz, Jarvis, Williams, and Nackerud, 2000). 매스틴(1994)은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해 지지적인 성인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지지적인 성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게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탄력성 연구자들은 부모 이외의 다른 중요한 성인의 지지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환경적 불화로부터 일치감과 낙관성을 갖게 하고, 탄력성을 촉진시키며(Spencer, 2002),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성장행동(thriving behaviors)에 도움을 주고(Perkins and Jones, 2004),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보호적으로 기능한다고 밝히고 있다(Voegler, 2000). 이처럼 다른 성인의 지지는 가정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왜곡된 관계를 보완하고 대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전광역시의 전체 130개 학교 중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 6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1개교를 비비례층화표집하였으며, 학년 에 따라 학교당 6개 학급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114명의 응답자료를 기초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1,244명을 선별하여 이들 중 고위험집단¹⁾ 795명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가정폭력 노출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은 크게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초등학교시절까지의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였다. 정서적, 신체적 폭력은 스트라우스 등(Straus et al., 1996)이 개발한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TS2는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목격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본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년이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각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폭력은 7개 문항, 신체적 폭력은 12개 문항으로 가정폭력 노출 유형에 따라 각각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범주는 "전혀 없다", "1년에 1-3번", "1년에 여러 번", "한달에 1-3번", "일주일에 1회 이상"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부모간 폭력 목격은 .96,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95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가정폭력 노출"의 구조모형은 부모간 정서폭력 목격과 신체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정서폭력 경험과 신체폭력 경험의 4개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2) 환경적 보호요인

① 가족지지 - 듀반과 울만(Duban and Ulman, 1989)이 사용한 가족지지 척도와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가족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5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7로 나타났다.

②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 퍼킨스와 존스(2004) 연구의 또래집단 특성척도와 세반스(Seban, 1999)가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척도(A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그리고 넬슨(Nelson, 1999)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0

1) 가정폭력과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Cicchetti, Rogosch, and Holt, 1993; Herrenkohl, Herrenkohl, and Egolf, 1994; Kaufman, Cook, Arny, Jones, and Pittinsky, 1994; Sagy and Dotan, 2001; Perkins and Jones, 2004)에서는 고위험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 정도는 1점에서 76점까지 분포되어 있어 이들 모두를 동일한 수준의 위험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가정폭력 노출 점수 하위 3분의 1을 제외한 상위 3분의 2를 고위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③ 민주적 학교분위기 - 카바조스 등(Cavazos et al., 1990)이 사용한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 SLS)를 박현선(199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8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분위기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④ 다른 성인의 지지 - 퍼킨스와 존스(2004), 올슨(Olson, 2003)의 다른 성인의 지지척도, 그리고 헤르난데즈(Hernandez, 1993)가 역할모델과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1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탄력성

사회적 탄력성은 그레삼과 엘리엇(Gresham and Elliott, 1990)이 개발한 사회기술평가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중에서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SSRS는 여러 연구자들(Miller, 1998; Lazzaro, 2000; Lloyd, 2000; Graham, 2001; Loveland, 2001)이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공감 10문항, 협동성 9문항, 주장성 9문항,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82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사회적 탄력성"의 구조모형은 공감과 협동성, 주장성의 3개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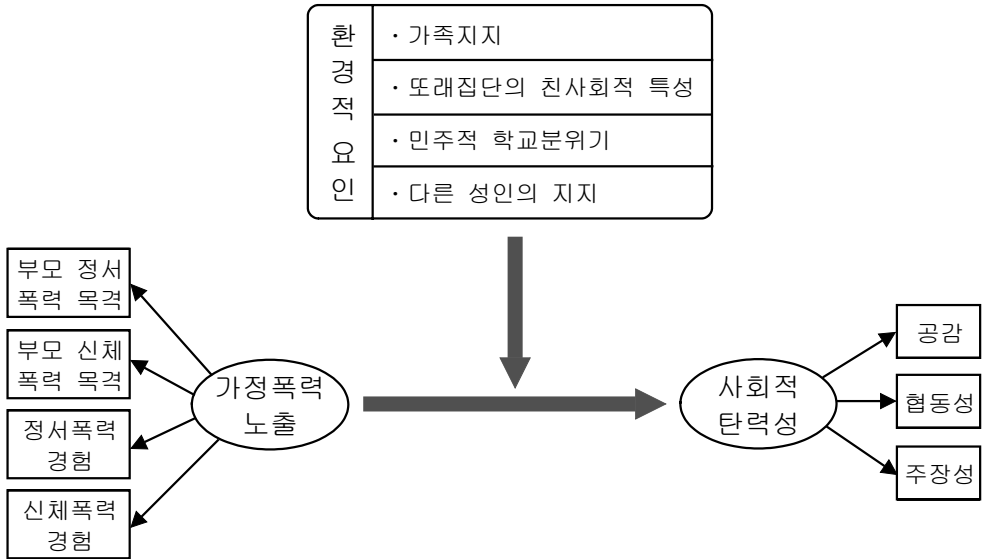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2.0과 AMOS 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사회적 탄력성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위험 및 환경적 보호요인의 영향력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고, 이론변수를 구성하는 각 측정변수(하위요인)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작용변수인 환경적 보호요인은 평균값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집단에서 나타난 회귀계수의 유의미도의 차이를 통해 상호작용효과 즉, 환경적 보호요인의 완화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 모형

<그림 1>은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경적 보호요인의 완충적

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투입될 각 요인변수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어 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그림 1〉 가정폭력 노출과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모형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본 연구는 남학생 386명(48.6%)과 여학생 409명(51.4%)으로 전체 7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375명(47.2%)이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248명(31.2%)이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이 172명(21.6%)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94명(11.8%)이었고, 2학년이 131명(16.5%), 3학년이 150명(18.9%)이었으며, 고등학생 중에는 1학년이 174명(21.9%), 2학년이 246명(30.9%)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N	%	전체
성별	남학생	386	48.6	795
	여학생	409	51.4	
학교급	중학교	375	47.2	795
	인문계 고등학교	248	31.2	
	실업계 고등학교	172	21.6	
학년	중학교 1학년	94	11.8	795
	중학교 2학년	131	16.5	
	중학교 3학년	150	18.9	
	고등학교 1학년	174	21.9	
	고등학교 2학년	246	30.9	

2)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

본 연구에서 탄력성이란 “청소년이 심각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적응성을 보이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카우프먼 등(Kaufman et al., 1994)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적 적응수준 이상이라면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이들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평균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2,114명)의 사회적 유능성 평균(78.51점)을 우수한 적응성의 기준으로 하여, 79점 이상인 청소년들을 탄력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2〉 우수한 사회적 유능성의 기준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 평균	우수한 사회적 유능성
78.51점	79점 이상

〈표 3〉은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청소년들 중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집단의 분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3〉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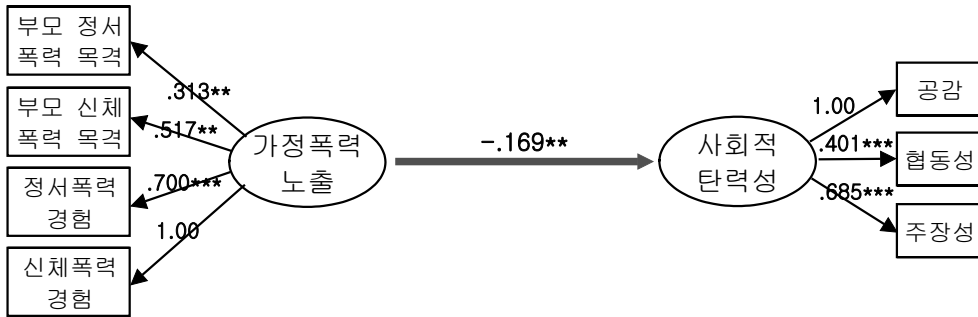
가정폭력 노출 유형	사회적 탄력성 집단		전체
	N	%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	277	43.3	640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302	43.1	701

분석결과,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43.3%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43.1%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과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 탄력성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한 사회적 탄력성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약 43%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에 대한 카우프먼 등(1994)의 연구에서 14%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탄력적 집단이 43%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중심적인 관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서 이들에 대한 접근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3)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 노출 위험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영향력

〈그림 2〉는 가정폭력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의 측정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변수 중 신체폭력 경험과 공감은 기준지표로 삼기 위해 회귀계수를 1로 고정시킨 고정미지수이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의 각 측정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각 이론변수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가정폭력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의 측정모형

〈표 4〉는 상호작용효과 분석에 앞서, 가정폭력 노출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영향력을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추세이며, RMR(Root Mean-Square Residual)과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RMR은 0.05 이하, GFI와 NFI는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owne and Cudeck, 1993).

〈표 4〉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위험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영향력

변 수		회귀계수			모형 적합도			
		B	β	t	χ^2 (p)	RMR	GFI	NFI
가정폭력 노출 위험		-.097	-.169	-2.596**	.000	.016	.987	.976
환경적 요인	가족지지	.065	.195	3.996***	.000	.015	.976	.906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356	.538	9.615***				
	민주적 학교분위기	-.004	-.007	-.145				
	다른 성인의 지지	.082	.258	5.166***				

p<.01 *p<.001

먼저,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χ^2 검증은 각 회귀모형 모두 기각되었지만, 가정폭력 노출 모형의 경우 RMR은 .016, GFI는 .987, NFI는 .976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모형에서는 RMR이 .015, GFI는 .976, NFI는 .906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 역시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노출 위험은 사회적 탄력성에 대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9(β)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보호요인의 경우에는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가 사회적 탄력성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β =.538)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β =.258), 가족지지(β =.195) 순으로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폭력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

〈표 5〉는 위의 분석에서 유의미성이 확인된 3가지 환경적 보호요인인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각 보호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표 5〉 환경적 보호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환경적 보호요인	N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	
		M	SD	M	SD	M	SD
	795	3.03	0.72	3.17	0.36	2.74	0.76

〈표 5〉와 같이 가족지지의 평균은 3.03점으로 나타났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3.17점, 다른 성인의 지지는 2.74점으로 나타났다.

〈표 6, 7, 8〉은 〈표 5〉에서 제시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보호요인을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6〉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변 수	회귀계수			모형 적합도			
	B	β	t	χ^2 (p)	RMR	GFI	NFI
가족지지 낮은 집단	-.135	-.154	-3.456***	.001	.019	.983	.969
가족지지 높은 집단	-.003	-.024	-.037				

***p<.001 (독립변인: 가정폭력 노출 위험, 종속변인: 사회적 탄력성)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χ^2 검증의 유의미도는 0.05보다 낮아 기각되었지만, RMR은 .019, GFI는 .983, NFI는 .969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지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154(β) 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에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족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이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높은 가족의 지지는 이러한 위험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하여 그들의 사회적 탄력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가족지지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의 지지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

었다 할지라도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경은·장덕희, 2000; Rutter, 1979)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7〉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변 수	회귀계수			모형 적합도			
	B	β	t	χ^2 (p)	RMR	GFI	NFI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낮은 집단	-.118	-.141	-2.938**	.006	.018	.985	.972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높은 집단	-.001	-.010	-.015				

** $p < .01$ (독립변인: 가정폭력 노출 위험, 종속변인: 사회적 탄력성)

〈표 7〉과 같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χ^2 검증은 유의도가 .006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나, RMR은 각각 .006, GFI는 .985, NFI는 .972로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이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1(β)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지는 반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 경우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다른 성인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변 수	회귀계수			모형 적합도			
	B	β	t	χ^2 (p)	RMR	GFI	NFI
다른 성인의 지지 낮은 집단	-.157	-.171	-3.530***	.002	.019	.984	.970
다른 성인의 지지 높은 집단	-.019	-.043	-.320				

*** $p < .001$ (독립변인: 가정폭력 노출 위험, 종속변인: 사회적 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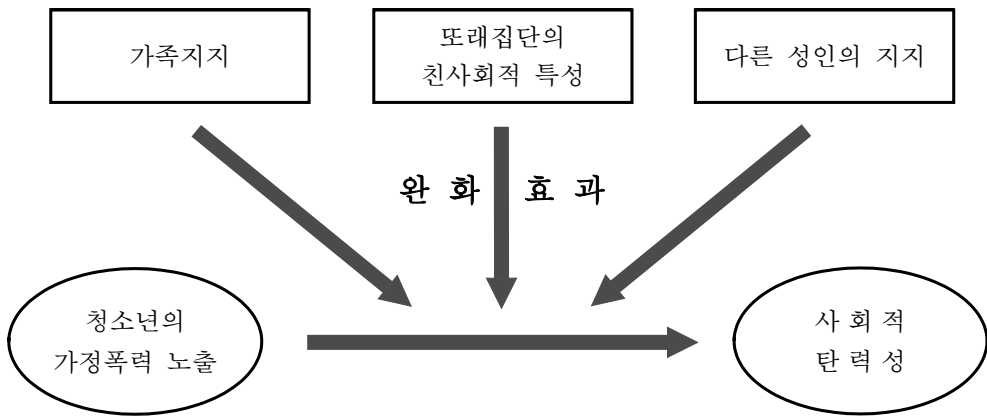
〈표 8〉의 다른 성인의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χ^2 검증은 .002로 나

타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RMR은 .019, GFI는 .984, NFI는 .970으로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성인의 지지 각 집단의 모형을 살펴보면, 다른 성인의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171(\beta)$ 만큼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성인의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지는 반면,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을 경우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가정에서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가족 이외의 환경이 보호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리고 부모 이외의 다른 성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을 하게 되면 이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은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 노출 위험을 완화시키는 환경적 보호요인들의 역할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사회적 탄력성에 대해 완화효과를 나타내는 환경적 보호요인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강점관점에 기초하여 고위험집단 청소년들 중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며, 가정폭력의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환경적 보호요인이 완화효과는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전체 2,114명의 청소년들 중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7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43.3%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43.1%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적 보호요인 중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 가족지지 순으로 사회적 탄력성에 정(+)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적 학교분위기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 가족지지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완화효과를 통해 사회적 탄력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탄력성 향상에 맞출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청소년들의 약 43%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반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능성 평균을 탄력성의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분포로 보여진다. 이는 이들을 문제청소년으로 보고 이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 감소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문제중심적, 병리적 관점을 넘어서서 이들의 강점과 잠재력에 기초한 탄력성 향상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입방향의 설정에 큰 함의를 준다고 본다.

둘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을 위한 개입에서 환경적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환경적 요인 중 3가지 요인이 이들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탄력성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대인관계적 맥락의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지지는 가족간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또래집단과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성인의 지지는 부모 이외의 타인들과의 관계적 맥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가정폭력에 노출됨으로써 관계적 왜곡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의 회복은 환경적 맥락에서 폭력적 관계 이외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환경적 자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이들 환경적 보호요인이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위협과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재하여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들 개별적인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대개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어린시절부터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 이러한 폭력에 대한 경험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탄력성은 평범한 마술(ordinary magic)과도 같다(Masten, 2001). 이는 위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적응력과 유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가족이나 관계적 맥락 속에 있으며 그리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간 누구나가 지닐 수 있는 일상적인 자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는 언제나 평범함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적 가정환경에서도 폭력적 관계를 맺는 부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분명 이들에게 일상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가족환경에 개입하여 지지적 가족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탄력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구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특성을 지닌 또래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놀이프로그램이나 집단활동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가족 이외의 친척, 교사 또는 종교모임이나 동아리모임의 지도자, 청소년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영역에서 위험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을 선별함에 있어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척도화 점수에 근거하여 선별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는 실천현장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둘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있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의 위험상황이나 청소년들의 유능성 또는 이들의 환경적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나 가족,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탄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가정폭력만을 상정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른 위험도 존재한다. 예컨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음주문제 또는 부모의 실직 등의 요인이다. 후속연구는 이와 같이 가정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위험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변인들 간의 관계와 보다 정확한 예측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차후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탄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연옥·박인아. 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김재엽. 1997. "사회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5: 99-116.
- 김제한. 2003. "알코올 중독자 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란. 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 중학생 자녀의 아내 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10.
- 김정옥·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박현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0. "아동학대의 실태 및 후유증 연구". 보건복지부.
- 신현숙. 2003. "가정환경 역경과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소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11(2): 71-84.
- 이경은·장덕희. 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폭력 범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7(1): 95-123.
- 이상균. 1998.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신욱. 2003.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학교폭력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한국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Anderson, D. C. 1998. "Curriculum, culture and community: The challenge of school violence." pp. 317-363. in *Youth Violence*, edited by M. Tonry and M. Moo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rrington, E. G., and M. N. Wilson. 2000. "A re-examination of risk and resilience during adolescence: Incorporating culture and diversi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9(2): 221-230.
- Bogensneider, K. 1996. "Family related prevention programs." pp. 127-138. in *Family Relations*, edited by J. E. Steven Son. New York: Rergamon.
- Browne, B. W., and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edited by K. A. Bollen and J. S. Long. Newbury Park, CA; Sage.
- Cicchetti, D., M. L. Rogosch, and K. D. Holt.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26-647.

- Compas, B. E., B. R. Hinden, and C. A. Gerhardt.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Conger, J. C., and A. J. Conger. 1982. "Components of heterosocial competence." in *Social skills training: A practical handbook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edited by J. P. Curran and P. M. Monti. New York: Guilford Press.
- Darwish, D., G. B. Esquivel, J. C. Houtz, and V. C. Alfonso. 2001. "Play and social skills in maltreated and non-malreated preschoolers during peer interactions." *Child Abuse and Neglect* 25(1): 13-31.
- Dekovic, M. 1999.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roblem behavior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6): 667-685.
- Ehrensaft, M. K., P. Cohen, J. Borwn, E. Smailes, H. Chen, and F. G. Johnson. 2003.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tner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4): 741-753.
- Fincham, F. D., and L. N. Osborne. 1993.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Retrospect and prospect."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 75-88.
- Fraser, M. W., J. M. Richman, and M. J. Galinsky. 1999. "Risk, protection, and resilience: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Research* 23(3): 131-143.
- Garnezy, N. 1985. "Stress-resistant children: The search for protective factors." pp. 213-233. i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Book Supplement No 4*, edited by J. E. Stevenson. Oxford: Pergamon.
- Garn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56(1): 127-136.
- Greene, R. R. 2002. *Resiliency: An integrated approach to practice, policy, and research*. NASW Press Washington, DC.
- Graham, B. L. 2001. *Resilience among American Indian youth: First nations' youth resilience stud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Gresham, F., and S. Elliott.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tanford.
- Herrenkohl, E. C., R. R. Herrenkohl, and B. Egolf. 1994. "Resilient early school-age children from maltreating homes: Outcomes in late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4: 301-309.
- Hoglund, B. J., and B. J. Leadbeater. 2004.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classroom ecologies on chang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first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40(4): 533-544.
- Jessor, R., J. V. D. Bos, J. Vanderryn, F. M. Costa, and M. S. Turbin. 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6): 923- 933.
- Jessor. R. 1991. "Risk behavior in adolescence: A psychosoci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c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597-605.
- Kaufman, J., A. Cook, L. Arny. B. Jones, and T. Pittinsky. 1994. "Problems defining resiliency: Illustrations from the study of maltreated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 215-229.
- Kaufman, J., and E. Zigler.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186-192.
- Kernic, M. A., M. E. Wolf, V. L. Holt, B. McKnight, C. E. Huebner, and F. P. Rivara. 2003.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dren whose mothers are abused by an intimate partner." *Child Abuse and Neglect* 27(11): 1231-1246.
- Lansford, J. E., K. A. Dodge, G. S. Pettit, J. E. Bates, J. Crozier, and J. Kaplow. 2002. "A 12-year prospective study of th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physical maltreatment on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academic problems in adolescence." *Archives of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6(8): 824-830.
- Lazzaro, C. R. 2000. *Understanding divorce, single-mother family life, and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social skills competence: A focus on the interplay among individual and family protective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ewis III, M. K. 2003.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lated constructs among academically resilient and academically nonresilient African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State.
- Lindsey, E., D. Kurtz, S. Jarvis, N. Williams, and S. Nackerud. 2000. "How runaway and Homeless youth navigate troubled waters: The role of formal and informal helper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 115-140.
- Lloyd, B. T. 2000. *Media influence on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 competence: Does music video impact adolescent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Loveland, T. E. 2001. *The inclusive classroom context: Interaction with and influence on the social competence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ndiana.
- Lutha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Luthar, S. S., C. H. Doernberger, and E. Zigler. 1993. "Resilience is not a unidimensional construct: Insigh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inner-city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703-717.
- Luthar, S. S., D. Cicchetti, and B. Becker.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kris, H. P. 1999. *Educational resilience: Mediating factors of adolescents' adversi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Masten, A. S. 1994.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pp. 3-25. in *Educational Resilience in Inner-city America*:

- Challenges and Prospects*, edited by M. Wang and E. Gordon. Hillsdale, NJ: Erlbaum.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asten, A. S., and J. D. Coatsworth. 1998.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favorable and unfavorable environment: Lessons from research on successful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3: 205-221.
- Masten, A., J. D. Coatsworth, J. Neemann, S. Gest, A. Tellgen, and N. Garnezy. 1995. "The structure and coherence of competence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6: 1635-1659.
- Miller, S. B. 1998. *Facilitation of peer relations: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ing activities and its relation to their peer support and social compet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Murry, M. V., and G. H. Brody. 1999. "Self-regulation and self-worth of black children reared in economically stressed, rural, single mother-headed families: the contribution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 *Journal of Family Issues* 20(4): 458-459.
- Nelson, D. A. 1999.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patterns and prosocial behavior: A longitudinal stud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erson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Olson, J. R. 2003. *An ecological risk/protective factor approach to understanding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Olsson, C. A., L. Bond, J. M. Burns, D. A. Vella-Brodrick, and S. M. Sawyer.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Perkins, D. F., and K. R. Jones.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 547-563.
- Raver, C., and E. Zigler.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363-385.
- Rutter, M. 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ds to stress and disadvantage." pp. 49-74. in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vol.3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edited by M. W. Kent and J. E. Rolf. Hanover, NH: University of Vermont Press.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pp. 181-214. i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edited by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euchterlein, and S. Weintraub.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yan, K. D., R. P. Kilmer, A. M. Cauce, H. Watanabe, and D. R. Hoyt. 2000.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omeless adolescents: Untangling the unique effects of maltreatment and family environment." *Child Abuse and Neglect* 24(3): 333-352.

- Sagy, S., and N. Dotan. 2001. "Coping resources of maltreated children in the family: A salutogenic approach." *Child Abuse and Neglect* 25: 1463-1480.
- Seban, A. M. 1999. *Friendship experiences among preschool children: Links with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Shonk, S. M., D. Cicchetti.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 Smith, C., and T. P. Thornberry. 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 involvement in delinquency." *Criminology* 33: 451-477.
- Spaccarelli, S., and S. Kim. 1995. "Resilience criteria and factors associated with resilience in sexually abused girls." *Child Abuse and Neglect* 19: 1171-1182.
- Spencer, R. A. 2002. *Hanging out and growing strong: A qualitative study of relationships with adults that foster resilience in adolescenc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rvard.
- Stewart, M., G. Reid, and C. Mangham. 1997. "Fostering children's resilienc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2: 21-31.
- Straus, M. A., S. H. Hamby, Boney, S. McCoy, and D. B. Sugarman.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hompson, K. M., and R. Braaten-Antrim. 1998. "Tough maltreatment and gang involvemen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3): 328-346.
- Tusaie-Mumford, K. 2001. *Psychosocial resilience in rural adolescents: Optimis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gender differenc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 Tyler, K. A., and A. M. Cauce. 2002. "Perpetrators of early physical and sexual abuse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6(12): 1261-1275.
- Voegler, M. E. 200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social resilience in homeless yout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s* 4(3): 81-85.
- Werner, E. E., and R. Smith.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lliams, J. H., A. Stiffman, and F. O'Neal. 1998. "Viol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youths: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and behavioral risk factors." *Social Work Research* 22(1): 3-13.

The Impact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on Social Resilience of Adolescents Exposed to Family Violence

Lee, Sang-Jun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resilience group of adolescents exposed to family violence, the influences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on their social resilience, and buffering effects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The sample consisted 795 high-risk group exposed to family viole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

First, 43.3% of adolescents witnessed father-mother violence and 43.1% of adolescents experienced violence by parents had social resilience.

Second, the higher level of family support,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and other adult's support were more likely to be increased social resilience. Third,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family support,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and other adult's support had a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moderating negativ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to their social resilience.

Key words: social resilience, family violence exposure,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논문접수일 2006. 2. 28. 게재확정일 2006. 4. 25.]